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중앙선을 넘지 말라 ★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넘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부부싸움에서도 넘지 말아야 하는 중앙선이 있다.  
서로 '싸우더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 는  
중앙선 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  
첫째, 막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따로 자지 않는다.  
셋째, '이혼하자' 는 말은 하지 않는다.  
- 고도원의《혼이 담긴 시선으로》중에서 -

\* 아무리 다급해도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 사이, 부부 사이에도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켜야  
끝까지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백년해로할 수 있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REMEMBER 20140416**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찰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www.smileman.info](http://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 매일성경(성서유니온)목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낮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목상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목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http://kysarang.org)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16호 부활절세번째주일 2015년4월19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GWANGYANG SARANG CHURCH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너무 아픈 4월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낸 수많은 생명,  
하물며 1년이 되도록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 피붙이를  
속절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여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별이 된 생명들이 가족들과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늘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진 : 진영훈 목사(맹목항에서 지난 4월16일에)

푸른물밭&열매한물가  
**광양사랑의교회**  
[www.kysarang.org](http://www.kysarang.org)

사랑의  
전도편지

## 꿈을 이루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얼굴의 내가 바라는 키와 몸매의 로봇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는 독특한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초라해 보이는 나는 집에 두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로봇이 멋지게 나를 살지요. 처음엔 그럴듯한 설정 속에서 무척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데 막상 현실로 돌아온 후엔 가상으로 빠져든 깊이만큼의 괴리감에 더 허망함을 느끼지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처럼 말입니다. 굳이 영화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나로 선택하고 내가 갖고 싶은 집을 꾸며 살기도 하지요. 때론 가상인지 실상인지 모를 순간이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나를 벗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땐 꿈을 꾸지요, 가상의 꿈을. 예수님을 믿고 나도 꿈을 꾸요. 하지만 가상이 아닌 실상의 꿈이지요. 예수님은 날 구원하실 때 세상에서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내 생김새, 내 집,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날 바라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날 만족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꾸던 꿈이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진 걸, 또 이뤄져 가는 걸 봅니다. 어떤 꿈은 정말 꿈이다 싶기도 했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 이뤄지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예수님께서 꾸게 하였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꿈,  
내 힘으로 일궈지지 않던 단단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꿈,  
성경 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꿈이  
이미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때론 꿈조차 꾸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이뤄 주셨지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앞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상 속에 이루십니다.

- 글쓴이 이중혜 ☺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 주일 낮 예배

주일오전 11:00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3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박한성집사
찬양	찬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다같이
말씀선포	데살로니가후서2:13~3:5	
	<b>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b>	라종렬목사
결단&합심기도	찬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성도의교제

###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주기도문 6 -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

###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데살로니가후서  
시편강해

###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 4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박형순집사 / 3주:박한성집사 / 4주:장경하집사

-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 예배안내 \_ 다음 주일은 "나눔과 감사의 연합예배"(10:15)로 드립니다.
- \* 매일성경 5~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기도제목  
- 서성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디아코노이(섬기는 사람들) 묵상나눔 모임  
- 매주 수요일 오전10~12시 본교회에서
- \* 책사랑(冊舍廊) 솔로레(Slow-Slow Reading)모임 안내  
- 매주 목·저녁, 금·오전에 진행되는 천천히 읽기 모임

